

KFPA NEWS

홍세권(洪世權) 상무이사 선임



협회는 총무부장인 홍세권(洪世權) 이사대우를 상무이사로 선임, 지난 2월 3일 협회 부설 방재시험연구원 원장으로 발령하였다.

홍세권 상무이사는 1949년 서울 출신으로, 한양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1974년)하고 미국태평양보험학교를 수료(1987년)하였으며, 1975년 기술직 공채 3기로 한국화재보험협회에 입사한 이래, 위험관리센터부장, 위험조사부장, 총무부장 등을 역임하였다.

FY2004 업무계획·예산관련 이사회 및 사원총회 개최



FY2004 업무 계획·예산관련 이사회 및 사원총회가 2004년 3월 22일과 24일, 은행회관 내 뱅커스클럽과 협회 6층 회의실에서

서 각각 개최되었다.

FY2004 업무목표는 방재활동을 통한 사회적 기여도 증대와, 방재전문기관으로서의 성장기반 구축으로 하였으며,

업무목표 달성을 위해

- 첫째, 안전점검 내실화로 손해를 경감,
- 둘째, 사원사와의 업무협력체제 강화,
- 셋째, 고부가가치 수익사업으로 자립도 제고,
- 넷째, 전문인력 육성 및 인력의 정예화를 세부 방침으로 하고 있다.

주요업무계획 중 FY2004 특수건물 점검목표는, 안전점검 20,070건, 소화설비할인검사 21,570건, 우량물건 할인조사 5,300건으로 전년 총 건수 대비 4.1% 증가하였다.

선진 화재예방기술(Fire Technology)의 보급을 위해 한국화재안전기준(KFS)의 지속적인 연구·제정 및 SFPE(Society of Fire Protection Engineers) Handbook 한국어판 제작·보급키로 하였으며, 사원사와의 업무협력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간담회 및 세미나를 확대 실시키로 하였다.

한편, 방카슈랑스, 자동차보험 손해율 증가 등 경영환경이 악화되어 가는 손해보험 업계의 여건을 고려하여, 사원사의 출연부담을 경감하고, 자체수입 증대에 지속적으로 전력키로 하였다.

유길중부장, 서울시 소방안전기술위원회 위원 위촉



협회 연구건설팀부의 유길중 부장은 2월 25일 이명박 서울특별시시장으로부터 우리 협회 처음으로 소방안전기술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을 받았다.

소방안전기술위원회는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 하자 등 소방 전반에 걸친 중요사항을 심의 및 의결하는 법정위원회로서 8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기는 2년이다.

금번 위원은 소방관련 학계 교수, 산업계 전문가, 소방 고급공무원 등 140여 명의 추천인들 중에서 엄선된 바 우리 협회가 널리 인정받고 있음을 반증하는 경사라 하겠다.

『자동식 스프링클러설비 핸드북』 발간 및 보급



협회는 미국방화협회(NFPA)에서 발간한 'Automatic Sprinkler Systems Handbook'을 2003년 4월부터 연인원 2,500여 명을 투입하여 『자동식 스프링클러설비 핸드북』 한국어판으로 발간하였다. 이는 보험분야 관계자 및 소방설비엔지니어와 공장, 고층건축물의 현장

KFPA NEWS

관리자에게 한국의 소방법규에서 규정되지 않은 자동식 스프링클러설비 기준의 세부 내용에 대해 기술적 배경을 상세하게 기술하여 소화설비의 이해를 증진할 수 있도록 교범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핸드북은 NFPA 코드 13을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화재위험 유형에 관계없이 모든 시설에 적합한 스프링클러 설비·설치에 관하여 다루고 있고, 40여 개의 코드와 기준에 대한 해설을 다루고 있다. 아울러 스프링클러의 일반적인 요구사항, 설계·설치기준 및 특수용도에 필요한 요구사항들을 수록하여 소방시설에 대한 연구와 스프링클러 설비의 완벽한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수건물 관계자 초청간담회 개최



협회는 위험조사부의 주관아래 3월 25일 오전 9시 협회 6층 회의실에서 특수건물 관계자 초청간담회를 개

최하였다.

간담회에는 중앙지부, 인천지부, 특수업무부 및 위험조사부에서 초청한 프라자호텔, 인터컨티넨탈호텔, 호텔신라, 국회의사당, 63빌딩 등 29곳의 특수건물 관계자가 참석하였으며, 이성기 위험관리본부장을 비롯한 관련 부서장들이 참석하여 협회 업무 전반에 대해 현실적이고 광범위한 의견교환이 있었다.

초청간담회에서는 '안전점검의 대고객 서비스 강화방안', '한국화재안전기준(KFS) 제정현황 및 활용방안', '방재시험연구원의 주요 업무현황' 등 3건의 주제 발표에 이어 참석자들과의 질의응답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소방서와 협회 등 20여개 검사기관의 시각 차이에 따른 혼선, FILK시험성적서의 인정여부 및 협회의 준공전 검사와 설계도면 검토, 한국화재안전기준(KFS) 등에 대한 활발한 질의응답이 이어져 더욱 유

익한 간담회가 되었다.

특수건물 관계자 초청간담회는 특수건물 관계자들이 협회에 바라는 사항을 파악하고 수렴함으로써 대고객 서비스를 증대하고 안전점검 업무 등 협회의 업무를 보다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보험 및 방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실시된 것으로, 협회 관계자는 '간담회를 통해 특수건물 관계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게 되어 질 높은 서비스 제공에 도움이 된다며, 이번 간담회는 주로 수도권 특수건물 관계자 위주로 진행되었으나 앞으로는 부산, 대구, 광주 등 지방에서도 개최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한국화재안전 기준위원회 개최



지난 1월 28일과 3월 4일, 협회 6층 대회의실에서 한국화재안전기준위원회의 전문위원회와 총괄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전문위원회 및 총괄위원회의 본 회의에 앞서 신임 및 재위촉 위원들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이 있었으며, 전문위원회에서는 대한화재 등 2명의 위원이 신임위촉, 동양화재 등 7명의 위원이 재위촉되었으며, 총괄위원회에서는 행정자치부 최용길 예방과장, 동부화재 이철주 위험관리서비스파트장, 한국표준협회 KS인증본부 박재일 건설화학담당장 등 3명 위원이 신임 위촉되었다.

이번 한국화재안전 기준위원회에서는 연료용 LPG시설 방화기준(안), 지하철시설 방화기준(안), 고층빌딩 방화기준(안) 등 3개 화재안전기준(안)에 대해 전문위원회(1월 28일)에서 18명의 위원들이 1차 심의를 거쳤고, 총괄위원회(3월 4일)에서 19명의 위원들이 재차 심의하였으며 의결된 사항에 대해 최종 수정·보완 작업을 거쳐 3월 12일 이들 3개 화재안전기준을 확정·제정하였다.

협회는 화재예방 및 방재기술 보급의 일환으로 화재안